

발전된 CG 기술...드라마 소재·스케일 무한 확장

‘악마판사’ ‘홍천기’ 등 잇단 호평
요괴·우주 등 화면 곳곳 CG 구현
공개 예정작도 SF·판타지를 많아
코로나 상황도 CG기술 의존 한몫

‘왕궁을 뒤덮은 검은 마왕’, ‘마천루로
꼭 찬 미래의 서울’...

블록버스터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홍천기’와 최근 종
영한 tvN ‘악마판사’에 등장한 장면들
이다. 이처럼 안방에서도 ‘환상의 세계’
가 펼쳐진다.

SF(공상과학), 판타지 요소가 최근 다
양한 드라마에서 그려지면서 스케일도
커지고 있다. 가파르게 성장한 CG(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액션·법정·사극 등 다
양한 장르가 더해져 시청자들의 호기심
을 자극한다.

●우주 배경·요괴 주인공에 스타도 ‘홀릭’

과거 ‘유치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기
피됐던 SF·판타지 드라마는 지난해부
터 눈에 띄게 늘어나 최근까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올해 방영된 tvN ‘경이
로운 소문’, ‘악마판사’, 티빙 ‘마녀식당
으로 오세요’ 등이 모두 SF와 판타지를
주요 소재 삼아 호평 받았다. 연말 공개
될 넷플릭스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



화려한 컴퓨터그래픽으로 가득 채운 SF·판타지 드라마가 쏟아진다.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고
요의 바다’, 지옥의 세계를 그리는 ‘지옥’, 좀비가 등장하는 ‘지금 우리 학교는’(위부터 시계방향으
로) 등이 공개된다.

는’에는 각각 지옥의 사자, 좀비 등이 C
G로 구현돼 화면 곳곳을 누빈다.

내년까지 흐름이 이어지면서 톱스타
들도 힘을 보탠다. 김희선이 저승사자 역
을 맡은 MBC ‘내일’, 김남길의 ‘반인반
요’(반은 인간, 반은 요괴)로 등장하는 tv
N ‘아일랜드’, 이재욱·뉴이스트 민현 등
청춘스타들이 마법을 다루는 ‘술사’ 이야

기를 그리는 tvN ‘환혼’이 내년 상반기
에 나란히 편성됐다. 조인성·한효주 등
은 초능력자의 삶을 담은 ‘무빙’을 내년
내놓기 위해 최근 촬영을 시작했다.

단순히 크리쳐(괴수)나 귀신이 등장
하는 수준을 넘어 우주, 미래사회 등 배
경을 가상세계로 설정한 드라마도 속속
제작되고 있다. 12월 공개되는 넷플릭

스 ‘고요의 바다’와 내년 제작될 ‘별들에
게 물어봐(가제)’가 드라마 최초로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한다.

●“CG 수준 향상으로 시나리오 쏟아져”

관련 드라마가 폭 넓게 제작되는 배경
에는 단연 CG 기술의 향상이 꼽힌다.

‘악마판사’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등
의 CG를 담당한 웨스트월드의 이용섭
슈퍼바이저는 28일 “국내 CG 기술력이
할리우드를 따라가는 속도가 놀랄도록
빠르다. 해외 신기술을 도입해 응용하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라고 밝
혔다. 이어 “이에 따라 여러 장소를 재조
합한 가상세계, 크리쳐, 마법 등 CG 기
술이 반드시 필요한 드라마가 점점 많이
기획되고 있다”면서 “기술과 장르 확대
가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킹덤’ 등 판타지 드라마들
이 거둔 세계적 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축소
된 촬영 여건 등도 작용했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최근 해외 촬영이 어려워져
신선한 배경을 찾지 못하자 아예 가상세
계의 이야기를 집어든 드라마 제작사가
많다”고 전했다. 이용섭 슈퍼바이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제한이 생기는 등
촬영이 힘들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
에서 CG 활용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007 노 타임 투 다이’ 사전 예매율 72%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감독
독 캐리 후쿠나가)가 사전 예매
율 72%를 돌파했다. 28일 영화
진흥위원회통합전산망 예매율
집계에 따르면 다음날 세계 최
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007
노 타임 투 다이’는 사전 예매율
72%와 예매량 10만3740장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고 흥행

작 ‘모가디슈’가 기록한 동시기 사전 예매율(33%)과 예
매량(5만893장)을 뛰어넘는 수치다. 영화는 15년간 제
임스 본드 역을 맡은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내놓는 마
지막 ‘007’ 시리즈로, 사상 최악의 적 사핀(라미 말렉)과
대결을 그린다.

제시카 브랜드, 홍콩서 80억 채무 소송 당해



제시카

결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
시카(정수연·32)가 설립한 패
션 브랜드 회사가 홍콩에서
8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홍콩 현지 매체들은 제시
카가 설립한 패션 회사인 블랑
앤 에클레어가 680만 달러(약
80억5000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조이킹 엔터프라이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제시카는 2014년 그룹에
서 탈퇴 해 회사를 설립했고, 대표직은 남자친구인 한국
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퀴이 맡고 있다. 제시카는
2013년부터 8년째 타일러 퀴이 열애 중이다.

KBSN, 양궁대회 중계 부적절한 발언 사과

KBSN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중 중계진의 발언
에 사과했다. 28일 KBSN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중계
도중 사용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관련해 국가대표 양
궁선수단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
혔다. 전날 새벽 NBSN 이기호 캐스터는 양궁 세계선수
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중계하던 중 국가대표 안산·
장민희가 각각 7점과 8점을 쏘자 “이게 뭐냐” “최악이
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BS 시
청자권익센터에는 이 캐스터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글
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BTS, 2년만에 오프라인 콘서트

미국 LA서 11·12월 총 4차례
코로나사태 후 첫 대형콘서트
K팝 산업에 기록적 될지 주목

“이제 ‘퍼미션’(permission·허락) 없이
출출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니 함께 즐겨
운 시간을 보내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11월 미국에서 대규
모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케이팝 아티
스트가 해외에서 처음 펼치는 대형 무대라
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11월 27·28일과 12월 1·
2일 총 4회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

파이 스타디움(SoFi Stadium)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LA’(BTS PE
RMISSION TO DANCE ON STAGE-L
A)를 개최한다. 이들의 오프라인 공연은
2019년 10월 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에서 펼친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
프’ 월드투어 파이널 공연 이후 2년 만이
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해부
터 월드투어를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해왔다.

이번 공연은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
은 일부 나라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위한 방역체계 전환 정책을 펼치
면서 가능해졌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



그룹 방탄소년단이 11월 27일·28일, 12월 1일·
2일 총 4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
에서 오프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
이지’를 연다.

식보다는 중증 환자 증가와 치명률을 낮
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꿔 ‘단계적
일상회복’을 꾀하면서 많은 관객이 운집
하는 팝스타들의 대형 공연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6일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서 열린 자선 콘서트 ‘글로벌 시티즌 라이
브’에도 이미 6만여 관객이 모여들기도 했
다. 또 7만여 객석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에 앞서 10월 록 밴
드 롤링스톤스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방탄소년단은 28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는 소감을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쉽지 않은 상황
이지만, 국가 및 지역별 방역 방침에 따라
대면 공연 기회를 모색해 미국에서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도권 4단계 등 대부
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가 적
용 중인 상황이라서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4일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를 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브로콜리(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
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
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